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8장(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님).....
※ 교 독 문2(시편2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87장(내 주님 입으신 그 웃음)
예배기도 1부이경훈전도사 2부 차소라집사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사 명”
협력기도 / 한 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다 갈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신도사역자와 함께 세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 여신도회를 축복하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마태복음 7:7-11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 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364장(내 기도 하는 그 시간)
봉 헌 (여신도회임원).....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찬 양 / 이영선집사	기 도 / 이영선집사	기 도 / 한마음기도	기 도 / 한마음기도	에스겔서강해	
분 문 / 베드로전서 2:4-10	분 문 / 베드로전서 2:4-10	본 문 / 딤편1:12-20	본 문 / 딤편1:12-20	금요기도회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말 씬 / 최세열목사	대심방이 끝날때까지 쉽니다.	
*베드로목회7프레임 / 3.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의 예수목회	축 도 / 최세열목사	“진리를 선포하는 바울”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음주 기도	1부	원혜경집사
	헌금위원	1월	이종봉 김혜경 함경숙 김봉순	1부	말 은 이
		2월	정정희 정숙자 김병국 천사라	2부	김금자권사
	식당봉사	금주	베드로회 다음주 에스더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성희집사
헌신찬양	금주	여신도회임원	다음주	구제사역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 마태복음7:7-11

주님의 공생애는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을 금식하셨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후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눅5:16), 새벽에(막1:35), 밤 새워(눅6:12)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최후만찬의 시간에도, 겟세마네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숨을 쉬듯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라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르게 기도하는 일과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막14:36)이라고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아빠 아버지’(갈4:6)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나의 기도에 응답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1.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구하라는 말의 원문은 “요구한다. 청한다. 묻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구하라는 말은 기도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함을 알고, 기도할 마음도 있지만 기도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음이 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마26:41). 그렇지만 기도를 쉬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골4:2).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속에서 가능합니다(롬8:26).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2. 찾으라고 하십니다.

찾으라는 말씀은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발견해야 합니다(약4:2,3).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1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 집에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의 비유에서 보듯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것은 전적으로 열어주는 자의 때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응답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9-1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현절 첫째 주(1월 19일)

제 4 과 당신을 용서합니다(누가복음 6장 37-38절)

(함께 읽을 말씀 : 잠언 19:11, 로마서 12:17-21)

말씀묵상

1.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두 파로 갈려 싸움을 했습니다. 교회당 이전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그 싸움이 급기야 감정싸움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다정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니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힘들고 속상한 것은 모두 마참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정의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 편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사람들 역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이 이리이러 했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폭력을 행사 하는 것도 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고, 여러 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미움이 내 맘에 남아 있는 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은 결국 나를 해치는 칼이 되어 나를 찌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따라보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뜻이 그려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할 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되레 선한 일을 하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것은(롬 12:17)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그렇게 써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라고 했으니(잠19:11) 묵묵히 그 말씀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용서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용서가 아닌 것은 위선이라고 다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를 향한 분한 마음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여든 말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상대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상치 않은 놀라운 기적을 낳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것(눅 6:37)이기 때문입니다.

3. 물론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할 말이 많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상대를 질책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정의감이 언제나 좋은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정의는 용서라는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남을 정죄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의감은 종종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한 마음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입니다(엡4:26).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는 해 질 때까지이고, 그 이상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길은 이렇게 해가 지도록 분한 마음을 품고 자리에 눕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할 일입니다. 용서의 영이 내게 임하시기를.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여신도회로 하여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2. 권사회 기도회가 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신년축복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일:7구역, 23일:5구역, 24일:10구역입니다.
4. 각 구역은 바뀐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기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 공산혁명에 가담했다가 체포됐다. 그의 나이 28세였고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나기 68년 전이었다. 제정 러시아법원은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그는 영하 50도가 넘는 시베리아로 끌려갔다. 사형 집행장에는 3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는 가운데 기둥에 묶였다.

총살 집행 5분 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5분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여겨졌다. '이생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쓸까'하고 생각했다. 유언에 2분, 생애를 정리하는 데 2분, 대자연을 둘러보는 데 1분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는 옆의 두 혁명동지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나니 2분이 지났다. 3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지난 28년의 세월을 낭비한 것 같아 후회가 밀려 왔다. 그 순간 "철커덕" 하는 총알 장전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다. 그는 마지막 기도를 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짧지만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임했다. 멀리서 흰 깃발을 날리며 말 타고 달려오는 병사가 있었다. 황제의 특별사면령이 내려준 것이다. 그 후 모스크바로 돌아간 그는 사형 순간에 느꼈던 그 짜릿함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작품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왔다.

중보기도의 힘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투 중에 미군 병사가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 병사를 구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때에 동료 병사가 시계를 쳐다보더니 부상당한 병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본 지휘관이 깜짝 놀랍니다. 지휘관은 두 명의 병사를 잃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를 동료병사가 구출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 모두 살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지휘관이 총에 맞은 병사를 구출해 온 병사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시계를 보고선 그 병사에게 달려갔는가?" 그러자 이 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매일같이 12시가 되면 정기적으로 기도를 할 테니까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가 바로 12시였습니다." 그 병사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동료를 구하려 갔던 것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3호 2014.1.19.

1월의 교회 행사안내

1. 신년제직회 :1월 6일
2. 평신도참여예배 : 여신도회 주일 -1월 19일
3. 해든솔 선교활동 : 1월 11일
4. 신년축복대심방
- 2일 : 1구역, 3일 : 2구역, 7일 : 3구역, 9일:4구역
10일 : 9구역, 16일 : 8구역, 17일 : 6구역
21일 : 7구역, 23일 : 5구역, 24일 : 10구역
5. 노회행사
1) 경기노회 신년하례회 : 1월 13일(월) /초월교회
2) 여신도회 경기연합회 신년예배 : 1월 14일 / 한신교회

축하합니다

새 생명을 낳으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귀한 생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방옥남권사님이 외손녀를 보셨습니다.
- 이강영 최영랑
- * 심복례권사님이 손자를 보셨습니다.
- 최현진 박지혜
- * 김병국집사님, 김기희집사님이 외손자를 보셨습니다.
- 홍경호 김정민

새 가족 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 양희임권사, 김희선집사(김동현) 원천주공2단지 214동 101호 김주희(김지환) 원천주공2단지 214동 102호
- * 강국환집사, 김용선집사 - 영통구 이의동 광교 자연안 힐스테이트 5413동 1402호
- * 이용훈집사, 김영숙집사 - 매탄2동 한국1차 아파트 106동 1001호

향기로운 예매과 봉사

- 심 일 조 : 엄정현 천사라 함경숙 김연학 김장숙 김희숙 허 웅 김순님 오복실 광현석 정선례 이종열 박현순 박치국 이영란 홍강의 김성희 최세열 조성순 박홍만 정정희 김상례 안해숙 서영자
- 감사헌금 : 최세열 조성순 주연숙 양희임 김지환 김동현 김희숙 최현진 박지혜 무명3 (일천번제)김동현 (심방)함경숙 이유자 이종봉 이춘호 박치국 이영란 박기환 한옥자 한미경 신공님 박경자 김미연 (선교) 이영란 (신년) 윤종원 오복실 엄정현 천사라 엄현경 엄현환 이현옥 (성탄) 엄정현 천사라 엄현경 엄현환
- 건축헌금 : 최세열 조성순 박홍만 정정희 박요한 박치국 이영란 허 웅 김순님 심승기 이종열 박현순 마리아 오복실 안해숙 조은미 노순영
- 비전씨앗 : 나인원 나인애 배영인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박홍만	4	13,000	15	이현옥	7	강은순	이영선	이영선	8	12,000	70	김성희
2	정정희	김한순	정정희	2	10,000		김한순	8	김순님	오복실	김상예	6	20,000	40	김장숙
3	이춘호	함경숙	나금옥	11	26,000	100	박정일	9	김인순	이영란	박치국	6	24,000	80	한옥자
4	김기희	최경선	정선례	12	42,000	20	주종임	10	장영분	노순영	노순영	5	15,000	50	박현순
5	이문순	원해경	원해경	5	20,000		방옥남	계				63	203,000	485	
6	류종란	김애자	류종란	4	21,000	110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광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인진영